

KLPGA 임원 입후보 출마 포부서

☐ 출마 포부서

존경하는 선·후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원번호 179번 윤소원 입니다.

저는 1998년 입회하여 투어선수생활을 하였고 이후 골프대회 대행사를 운영하며 대회 기획·운영과 선수매니지먼트 등의 다양한 실무적 경험을 하였으며, 현재 용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4년간 임원인 이사로 선출되어 미력하지만 제가 쌓아온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협회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제가 이사직을 맡은 지난 4년간 우리 협회에는 방송중계권 계약, 40주년 기념행사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대소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 협회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많은 발전 방향들을 논의하고 협의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이고 투명한 투어의 운영, 투어를 기반으로 한 부가사업, 회원 복지, 회원 자격의 강화 등 협회의 품위와 권위, 그리고 세계 최고의 투어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임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는 시점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임원은 넓은 시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원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 때로는 강경하고 때로는 유연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약적으로 발전한 우리 협회는 아직도 무궁무진한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세계 넘버원 투어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투어로써의 현재의 위치를 더욱 단단하게 자리매김하고 동시에 각 투어와의 Co-Marketing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과 폭넓은 선수층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계 최강인 KLPGA의 수준에 부합될 수 있는 사무국의 세분화와 전문화 역시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 협회의 회원들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논의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갑자기 이루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통하고 화합하며 노력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는 현재 다양한 연령의 선후배들이 협회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원들의 소통이 매우 필수적인 곳이 바로 우리 협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임원은 소통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울러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경청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소통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임원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8일

성 명 : 윤 소 원

